



KIA 타이거즈가 베이스 확대와 피치클락이라는 변화에 맞춰 기동력을 강화한다. 사진은 지난 11월 일본 오기나와 마무리캠프에서 피치클락에 맞춰 주루 훈련을 하는 KIA 선수들.

(광주일보 자료 사진)

KIA, 뛰는 야구 속도 낸다

개막전부터 베이스 확대...투구 시간 제한 시범 도입 박찬호·김도영·최원준 등 '스피드' 강력한 무기 될 듯

KIA 타이거즈가 새로운 변화에 맞춰 뛰는 야구에 속도를 높인다. 2024시즌 KBO리그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다. 3월 23일 개막전부터 자동 투구판정 시스템(ABS)이 도입되고, 메이저리그처럼 베이스가 확대된다. 지난 마무리캠프에서 키워드가 됐던 '피치클락(투구 시간 제한)'은 전반기 시범 운영을 한 뒤 후반기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KIA의 뛰는 야구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는 바로 베이스 확대와 피치클락이다. KIA는 두 차례 '도루왕'에 올랐던 박찬호, 단순 스피드로는 KBO리그 최고 수준인 김도영, 호타준족의 최원준 등 '육상부'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시즌 뜨거웠던 타격에 육상부의 스피드가 더해지면서 KIA는 위협적인 장면을 여러 차례 연출했다. 새로운 변화까지 더해지면서 KIA 전력 중

하나로 꼽히는 스피드는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전망이다. 일단 베이스 확대는 '주자' 입장에서는 입을 모아 반기는 변화다. 박찬호는 "베이스 확대는 주루에서 가장 이득이 된다. 3~5개 정도는 더 살 것 같다"고 언급했다. 피치클락에 대해서는 "큰 이득은 없을 것 같다"는 게 박찬호의 이야기. 메이저리그에서는 지난 시즌 스피드업을 위해 피치클락을 도입했다. 주자가 없을 때 15초, 주자가 있는 경우 20초 안에 투구를 완료하고 견제도 두 번으로 제한되는 방식이었다. 시간이 제한된 만큼 마음 급해진 투수를 상대로 주자들이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온도 차는 있다. 박찬호는 "새로 변화가 생기면 그냥 다 같이 뛰

'베이스 확대' 도입은
"주루에서 가장 이득
3~5개 정도는 더 살 것"
'투구 시간 제한' 하면
"뛰는 야구' 활성화 도움
느린 선수도 위협적 주자"

것 같다"며 "내 입장에서는 견제 제한 등이 없어야 더 유리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박찬호는 스피드보다는 센스가 뛰어난 주자들. 투수들과 싸움을 하면서 상대의 빈틈을 파고드는 유형인 만큼 박찬호 입장에서 보면 딱히 유리한 변화는 아니다. 지난 시즌 퓨처스리그에서 32차례 베이스를 훔친 '퓨처스 도루왕' 박정우도 박찬호와 의견이 비슷

하다. 박정우는 "베이스 확대는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피치클락은 잘 모르겠다. 나는 중간에 경기에 나가니까 비슷할 것 같다"며 "아직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괜히 혼자 급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신경 써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시선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주루로 따지면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될 전망이다. KIA 조재영 주루코치는 지난 11월 마무리캠프부터 '맞춤형'으로 피치클락을 준비했다. 조 코치는 "(김)하성이 먼저 메이저리그에서 해봤기 때문에 장시간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이용하고, 준비했는지 들었다. 투수들이 급해지기도 할 것인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야 한다"며 "빠른 주자는 뛰기 더 좋아질 것이고, 느린 선수도 위협적인 주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평범한 주력의 선수도 센스만 갖추면 빠른 주자처럼 위협적인 주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느린 주자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하게 선수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을 캐치

해서 이야기해 줘야 한다. 예를 들어 (이)창진이 투수가 던지기 한 템포 전에 뛰었다고 하면, (변)우혁이 같은 템포로 뛰면 죽는다. 두 템포, 세 템포 빠르게 어디를 보고 타이밍을 잡고 뛰어야 하는지 선수마다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처음 해보는 시도인 만큼 대화도 중요하다. 마무리캠프에서 세세하게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조재영 코치는 스프링캠프에서는 확대된 베이스를 놓고 KIA의 주루 전략을 완성할 계획이다. 조 코치는 "선수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계속 물어봐야 한다. 나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선수들의 장점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봐야 한다. 자신 없는데 무작정 뛰라고 해서 시도하다가 실패했을 때 다음에 못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며 "선수들에 맞춰 준비하고 과감함을 강조할 생각이 다. 대신 맹목적으로 그냥 뛰지 말고 생각하고 움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냥 뛰는 선수들도 있는데, 알려진 부분 노력하고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자기 것이 된다. 그러면 자신감이 불고 뛰는 게 더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시설 만족스럽다”

바흐 IOC 위원장, 선수촌 등 방문 “선수들 독특한 분위기 경험하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기간 선수들이 머물 선수촌을 방문해 시설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바흐 위원장은 대회 개막을 이틀 앞둔 17일 강원도 강릉원주대학교 기숙사에 차려진 강릉 선수촌을 둘러봤다. 바흐 위원장은 최중구 조직위원회 대표위원장,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강원 조직위와 IOC의 가교로 대회 준비를 상황을 총괄한 장흥 IOC 조정위원장과 함께 이날 오전 11시부터 두 시간 동안 웨이트 트레이닝 시설, 웰컴 센터 겸 위락 공간, 침실 등을 둘러봤다. 강릉 선수촌은 지난 15일 공식 개촌했다. 나라명이 적힌 훈련복을 입고 강릉원주대 캠퍼스를 삼삼오오 뛰거나 걸어 다녔던 청소년올림픽 참가 선수들은 바흐 위원장이 등장하자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바흐 위원장은 사진을 함께 찍고 안부를 물으며 친근감을 나타냈다. 훈련 센터 2층에 마련된 웨이트 트레이닝 시설에서는 선수들이 러닝 머신을 타거나 근육을 풀며 바흐 위원장을 맞이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 선수촌으로 연결되는 웰컴센터가 있다. 바흐 위원장은 농구 경기 등 각종 게임대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던 선수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환영받았다. 바흐 위원장은 선수들의 침실을 살피고 나서 식당으로 이동해 식사를 하던 선수들과 환담했다. 강원 조직위는 600명을 동시에 수용하는 선수촌 다이닝홀을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며 대회 기간 선수단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양식, 한식, 할랄식, 비건식으로 100여가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개막을 이틀 앞둔 17일 강릉원주대학교 기숙사에 차려진 강릉 선수촌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뉴를 다양하게 구성했다. 최중구 조직위 대표위원장은 "조직위는 IOC와 더불어 지난 4년간 이 대회를 열심히 준비해왔다. 선수촌에 들어온 선수들이 머무는 중에 국기를 내걸고 대회 분위기를 띄웠다. 바흐 위원장은 "선수촌 시설과 음식 등을 선수들이 모두 만족스러워한다"며 "참가 선수들이 이번 대회를 성인 올림픽을 위한 초석으로 삼고 희망찬 청소년올림픽의 독특한 분위기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6년 전에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에 선다는 자체만으로도 선수들은 큰 경험을 할 것이다.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통해 아시아에서 동계 스포츠의 저변이 넓어지고 미래 세대에 동계 스포츠가 더욱 사랑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예비FA 김하성 “개인 훈련 후 전훈 합류”

20일 출국

지난 시즌 최고의 시간을 보낸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본격적인 2024시즌 준비에 나선다. 김하성은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한다. 김하성 측 관계자는 17일 "김하성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인 훈련을 한 뒤 팀 스프링캠프에 합류할 것"이라며 "지난해와 비슷하게 훈련 계획을 짰다"고 전했다. 김하성은 지난해에도 1월 27일 미국으로 출국해 최원재 개인 코치와 기술 훈련에 전념한 뒤 팀 스프링캠프에 합류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일주일 가량 먼저 미국으로 이동해 기술 훈련에 전념하고 다음 달 초 스프링캠프지만 미국 애리조나주 피오리아로 이동할 계획이다. 김하성은 다음 달 23일부터 시범경기 일정을 소화한 뒤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고척스

카이돔에서 열리는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공식 개막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경기를 치른다. 그는 2023시즌 주전 내야수로 발돋움했다. 152경기에 출전해 타율 0.260, 17홈런, 38도루의 뛰어난 성적을 냈다. 특히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력이 돋보였다. 그는 한국 선수 최초로 내셔널리그 유틸리티 야수 부문 골드글러브까지 거머쥐었다. 다만 김하성은 귀국 후 후배 야구 선수 임혜동과 폭행·공갈 혐의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등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최근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김하성은 다시 운동화 끈을 조여 맨다. 2024시즌은 김하성의 야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다. 2020년 샌디에이고와 4+1년 최대 3900만 달러에 계약한 김하성은 2024시즌에도 활약을 이어간다면 옵션을 실행하지 않고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AS로마, 새 사령탑 ‘클럽 레전드’ 데로시 선임

성적 부진을 이유로 조제 모리뉴(60·포르투갈) 감독을 전격 경질한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AS로마가 '클럽 레전드'인 다니엘레 데로시(40·이탈리아·사진)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로마는 16일(현지시간) 새 감독으로 데로시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2024년 6월까지다. 로마는 이날 모리뉴 감독의 경질을 발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후임까지 발표했다. 데로시는 2001-2002시즌 세리에A에 데뷔해



AS로마에서 18시즌을 보낸 팀의 레전드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이탈리아 국가대표로도 활약한 그는 세 차례 월드컵에 출전하는 등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117경기(21골)를 뛰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이탈리아의 우승 멤버이기도 하다. /연합뉴스